

2026년 10월의 국내독립운동사적지

우리의 말과 글을 지켜내다

- 조선어학회 회관 터와 정태진 집 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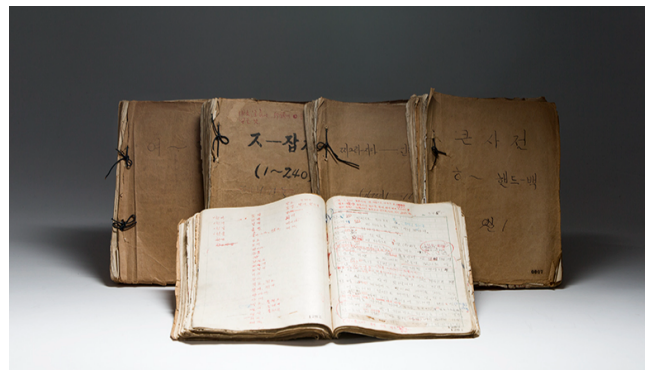
2026년 10월 9일은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한글날은 1926년 11월 4일 조선어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매년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정하여 행사를 거행한 것을 시초로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선양하기 위하여 지정되었다. 1921년 우리 말과 글 연구의 선구자였던 주시경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글 연구와 보급을 위해서 조선어연구회가 창립되었다. 이후 1931년 '조선어학회', 1949년 '한글학회' 등 단체명의 변천은 있었지만 그 목적과 정신은 그대로 이어졌다.

조선어연구회와 후속 단체들은 창립 이후 어문정책 수립과 갖가지 강연, 학술대회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전국 순회 계몽 강연, 가갸날(한글날)의 제정(1926), 잡지 『한글』의 발간(1927), 조선어 철자법(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1930~1933), 『사정(査定)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간행(1936),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제정(1931~1940), 『조선말 큰사전』 편찬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광복을 맞은 후에는 교과서를 편찬·보급하였으며, 국어 교사를 양성하였다. 또한 한글문화를 보급하고, 우리 말글의 선양 사업을 펼치는 등 현재까지도 '한글학회'로 우리말과 글의 연구, 통일 발전을 목적으로 그 명맥을 잇고 있다.

조선어연구회도 조선어학회도 핵심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 바로 한글 맞춤법 통일이었다. 조선어연구회는 1929년 10월 대중단체로 조선어사전편찬회를 두었으며, 1930년 12월에는 조선총독부의 철자법이 아닌 대한제국기의 연구를 기초로 한 별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기로 결의하였는데 1931년 1월부터 조선어학회가 이어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1936년에는 조선어학회가 사전 편찬의 업무 일체를 인계받아 편찬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1939년 여름부터는 큰사전의 원고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듬해인 1940년 3월에 총독부에 16만 어휘, 3천여 삽화로 구성된 『조선말 큰사전』 출판을 신청해 일부 삭제와 정정을 조건으로 출판 허가도 받았다. 1942년 3월에는 원고 일부가 조판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조선어학회에서 발간한 한글잡지 『한글』(1937)



『조선말 큰사전』 원고(보물/국가지정기록물 제4호)

이러한 활동을 전개한 조선어학회의 회관이 위치했던 곳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 129번지이다. 회관 마련에는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정세권의 역할이 컸다. 당시 조선어학회 대표 이극로로부터 조선어학회 건물이 없다는 말을 들은 정세권은 종로구 화동 129번지 1호 소재의 32평 대지를 매입했다. 그리고 1935년 2층 양옥 건물을 지어 땅과 건물을 조선어학회에 기증했다. 조선어학회는 1935년 7월 11일 이곳에 입주하여 1층은 대표 이극로의 생활공간으로, 2층은 조선어학회 사무실 겸 사전편찬실로 사용했다. 현재 조선어학회 회관 건물은 남아 있지 않고 건물 터를 알리는 표지석이 그 자리에 세워져 있다.



조선어학회 회관 터 표지석과 입구

하지만 기껏 마련한 회관도 그리 오래 사용하지는 못했다. 1942년 10월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해산되고 원고도 압수당했기 때문이다. 조선어학회 사건은 함경남도 함흥의 홍원경찰서가 1942년 7월에 영생여자중학교 박영희가 쓴 일기 내용을 구실삼아, 사전 편찬에 관여하던 정태진을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준 교사로서 지목하고, 조선어학회가 민족주의자 단체라는 자백을 얻어낸 후 회원들을 검거한 것이다.



조선어학회 회원 단체사진(1945.11.13)

정태진은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후 귀국하여 영생여자중학교에서 조선어와 영어를 가르쳤다. 1941년 5월 교직을 그만두고, 조선어학회의 사전 편찬 전임위원인 정인승의 권유로 같은 전임위원으로 사전편찬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정태진을 일제가 체포한 것은 애초부터 조선어학회를 탄압하기 위해서였다. 일제 경찰은 조사과정에서부터 피의자로 다루며 '조선어학회가 민족주의자들의 집단체'라는 자백을 받아 내려고 추궁과 고문을 가하였다. 20여 일의 고문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정태진은 교단에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으며, 조선어학회가 민족주의자들의 단체임을 인정하였다.

정태진은 1944년 9월 20일 예심판사에 의해 이른바 치안유지법의 결사 목적 수행 행위죄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일제는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주입하고,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조선어학회에 들어가 조선어사전 편찬에 종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일로 1945년 1월 15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받아 옥고를 겪다가, 그해 7월 1일 풀려났다. 광복 후에는 미국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미군정의 고위관료로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조선어학회를 재건해 『조선말 큰사전』 편찬 업무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정태진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생가와 기념관이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995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생가 건물은 택지 개발로 멸실되었고 부지는 현재 농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생가의 남은 초석 등에 기초하여 2004년에 안채와 문간채 등을 복원하고 '석인 정태진 기념관'으로 개관하였다. 복원된 생가에는 정태진의 삶과 조선어학회, 『조선말 큰사전』 편찬과정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전시물을 설치하여 찾는 이들에게 그 역사를 알리고 있다.



석인 정태진(1903~1952)



정태진 저서



정태진 집터와 정태진 기념관 전경